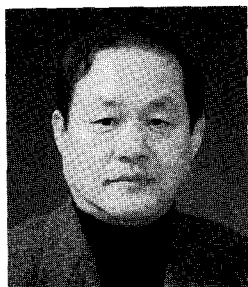


육용종계 사육수수 증가 원인과 대책

## 원종계 · 종계의 수입 쿼터제로 사육수수 제한해야...



박 천 석  
(주)신기 전무

### 1. 육용 종계업 현황과 사육수수 증가 원인

우리 육용종계업계는 해마다 큰 발전을 해왔다. 이처럼 몇 해 동안 양계업 자체가 께찮은 사업으로 인정받아오면서 종계 부화업체, 계열화 업체 모두 사업을 확장하고 부풀려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가 지금 국내에 들어온 원종계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의 현재 불황은 아직 불황이 아니며 이제부터의 불황이 시작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2001년과 2002년에 무분별하게 증가된 원종계 수입은

내년도까지 우리 업계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막연하게나마 과잉이 되면 항상 찾아오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연감소, 또는 천재지변이나 조기 강제 환우, 또는 일부 감축으로 인해 살아나는 경기에 의존하다 보면 남이 쓰러지기 전에 나의 출혈 역시 크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 2001년도에 수입된 원종계 수수는 167,913수수로 2000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2년도에도 150,836수수를 기록하였다. 이에따라 올해에 생산될 육용종계의 생산 잠재수수는 6,856천수로 지난해 5,982천수에 비해 14.6%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9, 10월에는 종계 분양 총 생산잠재력이 약 700만수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본 대책을 찾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같은 과잉생산이 금년 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날로 번성하는 질병 속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모든 양계인들은 엄청난 출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불황이 예견되는데도 혹시나 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사육수수만 점차 증가시켜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랫동안 우리 양계인들에게 장기불황이란 없었기에 너무나 큰 기대 심리가 잠재해 있었던 결과인 것 같다. 그 동안 호불황이 짧게 지나가면서 수백의 직원을 거느린 대형업체로 거듭난 계열업체들이 상당수 생겨나게 되었다. 지난날 양계업을 하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속에는 질병만 이겨낸다면 무조건 돈버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머리속에 박혀 있었으며, 실제로 그 동안 많은 돈을 벌은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계열화업체, 원종계 농장, 부화장 모두 할 것 없이 많은 수익이 창출되다보니 앓다투어 내실있는 발전보다는 무조건적인 확장에만 매달린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우리 모두가 오랜 시간동안 아픔을 견뎌야 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다.

표1. 연도별 원종계 수입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예정)
수수(우유)	84,924	88,638	58,042	167,913	150,836	155,836

(자료: 대한양계협회)

표2. 육용종계 생산잠재력

(단위: 천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04	625	787	824	699	390	493	604						4,422
2003	462	588	654	592	338	401	547	693	772	722	573	514	6,856
2002	314	368	484	500	511	319	456	579	667	677	641	466	5,982
2001	289	348	379	338	208	229	276	310	337	331	349	241	3,635

(자료: 대한양계협회)

표3.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

(단위: 십만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03	409	422	444	466	471	464	445						
2002	325	325	331	356	390	413	411	389	376	378	393	409	4,496
2001	308	304	310	326	346	348	325	295	284	294	307	319	3,766
2000	326	325	329	340	346	338	310	283	276	289	302	309	3,773

(자료: 대한양계협회)

## 2. 불황극복 대책방안

### 1) 수수감축이 이루어져야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일반 육계, 종계업체, 계열화업체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하여 늘어난 물량을 적정선으로 감축시키지 않을 경우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장기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원종계, 종계의 수입물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도입하고 자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 연간 종계 수당 약 100수 내외의 실용계 병아리를 생산하는 국내 종계생산성으로 보아 적정 종계수수는 약 400만수 내외로 관측된다. 그러므로 분기별로 질병발생과 소비량, 또한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에

서의 원종계 및 종계의 과감하고도 확실한 도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종계업자들은 감축운동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수급조절을 위한 도태사업 등을 여러차례 전개했지만 계열업체의 참여부족으로 계열화 업체들만 도와준 꼴이 되었다는 생각들이다. 그러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



작금 불안한 세계경제(즉 이라크 전 발발위협 등)로 인한 국제유가의 상승 또한 1월부터 국제유가가 배럴당 30\$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생산비가 가중되는 등 어려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증가를 기대하기도

을 통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고, 현재 육계생산량의 70% 내외를 점유하는 계열주체들이 결자해지의 논리에 따라 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사육수수 조절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각 계열사에서는 소비할 수 있는 수량의 계획을 만들고 각 계열사나 생산업체에서는 자사의 영업계획을 항상 해마다 늘리는 계획으로 생산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생산계획을 한 템포 늦게 세운다면 어떨까하는 바램이다.

## 2) 닭고기 소비촉진 방안 모색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지난해 4/4분기에는 소비량이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잠재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육계시세가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어 진행되고있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현 상황을 정확하게 정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정부주도의 소비촉진 방안(예 군납또는 학교급식 등)을 강구하고, 우리 업체들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수입 원료육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단기적인 대책으로 수매비축, 또한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 홍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 생산잠재력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에는 아직 미흡할 것으로 사려된다.

## 3)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단합이 필요

양계산업과 양계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원종계, 종계업체, 계열업체, 육계생산농가들이 한

배를 탄 지금 자율적인 입관유보, 사육수수 조절 등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시행하고 정부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육수수 조절을 유도하는 수급안정기금을 집행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유의 적절한 판단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뒤에서 비아냥 거려왔자 이득이 없다. 우리 양계인들은 산란계, 종계, 육용계, 부화장, 계열화업체 모두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모두 다른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아무리 건의를 해도 한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우리 모든 양계인이 한 마음이 되어 잘못된 정책의 시정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타 축산부분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건의를 하는 등의 한 목소리만 낼 수 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보여진다.

육계사육농가는 종계부화장을 원망하고, 종계부화장은 원종계 농장 또는 계열업체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모두 한마음을 가져도 어려운데 말이다.

앞으로의 육계 생산량 대부분 계열주체들이 차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계열주체들도 양계협회에 들어와 모두 한마음으로 원종계와 종계의 수입물량이 적정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밑듯이 들어오는 계육 수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영으로의 원가 절감 또는 계육의 차별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모두들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 특히 실용계를 키우는 육계 농가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두들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노력하시길 당부하는 바이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자동화 기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 동 광 공 업

대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화 : (055)374-8461~2, 팩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